

‘바로 세워야 할 역사’ 여순사건 70주년

민간인 등 2000여명 희생
한국 현대사 대표적 비극
오늘 여수에서 합동 추념식
특별법 제정 운동 확산

‘여순(여수-순천)사건’ 발생 70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19일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꼭 70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제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꼽힌다. 정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간인 439명을 비롯해 2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순사건 70돌을 맞아 추모행사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는 19일 오전 10시30분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여순사건 70주기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연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민간인 및 군·경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인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4·3유족회, 안보·보훈단체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한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경찰희생자 유족회는 이날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특별법 제정 운동도 활발하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 유족의 아픔 치유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나 노근리



문대통령·프란치스코 교황 악수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교황 서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사건, 제주 4·3 사건의 경우 국가폭력으로 인정돼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반면 여순사건은 17년째 특별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4월 김중조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해 모두 다섯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국방부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2017년 4월)과 이용주 의원(2018년 1월)이 잇따라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계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역에서는 여수-순천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를 결

성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한 달 만에 4만명 넘게 동참했다.

전남도의회·여수시의회 등 지방의회도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 학술대회·문화제·지전거순례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여수=박정옥·김창화 기자 jwpark@

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합류 검토

협상 내용 전면 공개 조건 ... 광주시 “더 공개할 것 없다”

의견차 여전, 시간 걸릴 듯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지역노동계가 ‘협상 내용 전면 공개’를 조건으로 협상 합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 내용 전면 공개’ 요구에 대해 광주시는 “지금까지 공개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인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시는 18일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에서 보내온 질의에 대해 다음주 초 답변을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추가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서 직접 대화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 의장은 “광주시가 지금까지 현대차와 협상하면서 주고 받은 내용 전체를 공개해줘야 한다”며 “최근에도 시의회 중재로 만났지만, 공개한 내용이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협상 참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역노동계에게 보여 줄 협상 내용이 별다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와 투자 규모, 위탁 물량, 회사 운영 방식, 임금, 근로조건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것이 광주시가 해 온 모든 것”이라며 “비밀로 해야 할 내용은 없으며, 지역노동계 대표가 협상에 참여해보면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역 노동계가 현대차와의 협상 마지노선인 10월 말 이전에 협상에 전격 합류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노동계 역시 ‘광주형 일자리 완성자 공당 설립 사업’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쉽사리 참여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시는 일단 추가질의에 대한 답신을 공문으로 보내고, 지역노동계의 반응을 살펴본 뒤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10회 14세 & 세계 & 경제

밥을 먹고 교복을 입으며 힘내자는 다짐 한 번, 머리를 묶으며 힘내자는 다짐 또 한 번, 신발을 신고 학교와 집의 경계선인 듯한 집 문턱을 넘으며 오늘도 힘내자는 말을 되새긴다. 매일 똑같은 경계선을 넘나들며 다른 생활을 하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집에서의 생활과, 학교에서의 생활이 모두 즐겁다.

신정은 / 장래의 꿈: 음악 프로듀서

수업시간에는 잠이 와서 눈이 감기는데 쉬는 시간이 되면 잠이 깎가시고 활발해진다.

익명 / 장래의 꿈: 아직..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한 후 중2학생들(만14세)에게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고 작은 그들의 세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시타미치 모토유키(작가) / 2018광주비엔날레 *이 프로젝트는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함께합니다. 작품이 실린 신문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 됩니다.

송학산 높은정기 우러러 보며~

대촌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일시 ▶ 2018. 10. 21(일) 08:00~
장소 ▶ 모교 운동장
전화 ▶ 010-3610-4706

대촌중학교
총동문회장 남순복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 공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당국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

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도 홈페이지에 비리

유치원 신고장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7개 팀으로 된 감사반을 긴급 편성해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영세 유치원을 제외한 80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임동욱·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주름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나이 들어 보일까요?
주름, 기미, 잡티는 쉽게 기릴 수 있지만, 힘 없이 처진 얼굴탄력은 숨길 수 없죠
뿌리부터 인까지 인삼에너지를 담은 캡슐에센스가 약해진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는 자음생에센스-
이제, 시간의 흐름과 외부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Deductive Object © Kimsooja Studio LLC
*설화수, 플레그시스트어 및 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플레그시스트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